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1월 1일 화요일 (음 10월 2일) 제167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지역 수출 4억달러 대 추락

9월 4억8991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6.3% 감소 가장 비중 높은 자동차 등의 부진이 주 요인

전북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수출이 작년 12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며 5억 달러 대로 올라선지 한 달 만에 4억 달러 대로 추락한 것. 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영준)에 따르면 2016년 9월 전북 수출은 4억8,991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6.3%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9월에 계상된 선박 수출(1억4,400만 달러)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선박을 제외할 경우 9월 전북 지역의 총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6.0% 감소에 그친다. 전북의 수출부진은 주력업종으로 수출비중의 16.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와 8.5%인 '자동차 부품'의 부진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자동차의 올해 9월까지 수출금액은 7억9,1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0.0%나 줄었다. 같은 기간 자동차부품도 23.8%나 감

소했다. 건설경기 위축에 올해 전체 수출도 2억1,5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분의 3수준에 머물렀으며 인조섬유도 같은 기간 1억6,500만 달러로 8.6% 감소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에 반해 20위권 내 대부분의 품목이 두 자릿수 대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전북의 수출을 견인했다. 특히 전북의 주요 수출 품목 중 대기업형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정밀화학 원료, 자동차 및 동 부품, 선박류 등을 제외할 경우 1~9월 누계 기준 4.8%의 성장세를 보였다.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2009년 8월(2억4,300만달러) 이후 최저치까지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다소 개선됐다. 무역협회 전북본부 관계자는 "전북의 9월 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12.9% 감소한 2억7,380만 달러였으며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 대비 1억3,465만 달러 축소된 2억1,612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지난달 31일 전주대학교 앞 버스정류장에 세워진 한 시내버스 유리창에 '박근혜 퇴진!'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이 놓여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분노한 전북의 목소리 더 커져

전주시 시국회의 집회 열어... 향후 시국 촛불행진도 도내 버스 운전사들도 하루 두차례 경적 시위 올리기로

전북진보연대 "봉건시대에도 없었던 사태 벌어져 하야·정권 퇴진 이뤄질때까지 투쟁 멈추지 않을 것"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전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4면> '박근혜정권 퇴진 전북비상시국회의(준)'는 지난달 31일 전주시 서신동 농업인회관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정한다. 이들은 이날 논의를 통해 시국회의의 기초와 방향 최종 결정, 시국회의의 결성문 채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은 또 오후 6시30분 전주공남문 광장에서 관통로까지 시민들과 함께 하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 촛불

행진'에 나섰다. 이에 앞선 지난달 29일 전주 세이브존 앞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시국회의'가 집회를 열었다. 민노총 전북본부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국회의는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홍보물을 배포하며 선전전을 진행했다. 도내 버스 노동자들도 가세하고 있다. 전주지역 버스 노동자들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의미로 매일 경적을 울리기로 했다.

지난 주말 경적 시위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목소리에 힘을 보탤던 전북지역 버스 노동자들은 이번 주에는 하루 두 차례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경적을 울릴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관계자는 "매일 정오와 오후 4시에 경적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니 시민들이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시민의 발로 도로를 누비는 버스 노동자들이 정권 퇴진의 목소리와 함께 하기 위한 방편으로 경적 시위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도 투쟁의 수위를 높인다. 전북진보연대는 전북도청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시국선언'을 했다. 전북진보연대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북지부, 민중연합당 전북도당으로 구성

돼 있다. 시국선언문에서 이들은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초유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태가 벌어졌다"며 "전북도민과 함께 하야, 정권 퇴진 투쟁의 거대한 불길을 지필 것이며 하야와 정권 퇴진이 이뤄지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민형 기자

본사 인사

- ▲안재용
임:부장 직무대행
명:경제부장 직무대행
- ▲김민근 체육부 기자
명:사회부겸 체육부

(11월 1일자)

FIFA U-20 월드컵 자원봉사자 모집

전주시가 자원봉사자 모집을 시작으로 FIFA U-20 월드컵 대회 준비를 본격화한다. 전주시는 내년 5월 전주에서 개막하는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대회의 성공개최에 힘을 보태고, 대회의 열풍을 활약해줄 자원봉사자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대회 개막일 기준 만 18세 이상 내·외국인(1999년 5월 이전 출생)으로, 서류·면접심사, 교육훈련 등을 거쳐 3월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로 일상회화가 가능해야 한다. 모집 분야는 ▲경기지원 ▲의료 ▲등록 ▲미디어 등 총 11개 분야로 총 20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전주시청(www.jeonju.go.kr), 전주시 자원봉사센터(nanum.jeonju.go.kr), 2017피파20세 월드컵조직위원회(www.kfa.or.kr/u20korea)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김영재 기자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소통의회! 비전의회! 희망의회!



제7대 순창군의의회

천년의 장맛!
화려한 경관!
맛과 멋의 고장
순창으로 오세요~



순창군의의회 홈페이지
www.sunchangcouncil.go.kr